

Yeosu Web Contents

2024년 10월 08일 04시 43분



목차

목차	2
반려동물 재난 대응 가이드라인	3
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재난 대응 가이드라인	3
반려동물과의 재난 대피,미리미리 준비 해주세요.	3
재난 발생 전	3
1. 대피 계획 세우기	3
2. 반려동물용 재난 키트 만들기	3
재난키트	3
3. 수의사와 상담하기	4
4. 가족들과 함께 대피 연습하기	4
재난 발생 시	4
1. 대피 전 확인하기	4
2. 대피 중 요령	4
3. 대피시설(임시주거시설) 생활 요령	4
주의	4
재난 발생 후 회복	4
1. 반려동물의 건강	4
2. 집에 돌아온 후	5
3. 반려동물을 유실 했을 경우	5

태풍	호우	낙뢰
대설	지진	응급처치요령
화재	시민행동요령	반려동물 재난 대응 가이드라인

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재난 대응 가이드라인



반려동물과의 재난 대피,미리미리 준비 해주세요.

지진, 태풍, 홍수 등 자연재해 뿐만 아니라 건물 내 화재, 독성 물질 누출 등의 사고는 언제,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재난입니다.

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은 동물과 함께 대피해야 하기 때문에, 대피가 늦어지거나 대피 시설을 찾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 보호자와 반려동물 모두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.

본 가이드라인은 반려동물 가족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과정을 돕도록 마련되었습니다. 한 단계씩 따라서 준비하시면서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재난에 대비해 주세요.

[☞ 반려동물 보호자용 가이드라인 보기](#)

재난 발생 전

1. 대피 계획 세우기

- 재난 발생 시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할 수 있는 집에서 가까운 대피 시설(임시주거시설) 목록을 만들어놓고 시설까지 이동 경로 및 이동 방법을 미리 생각해 놓는다.
- 재난 발생 시 반려동물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, 동물보호단체 및 동물병원 등의 비상연락처 목록을 만들어놓는다.

2. 반려동물용 재난 키트 만들기

- 출입구 근처 혹은 쉽게 손 닿을 수 있는 곳에 목줄, 하네스, 이동장 등 이동에 필요한 장비들과 대피 시 반려동물에게 필요할 물품들을 모아놓은 재난 키트를 구비해 놓는다.
- 주기적으로 물품의 보관기한을 확인하고 보호자와 찍은 사진 및 연락처, 주소 등은 최신인지 확인한다.

재난키트

- 하루치 사료와 물, 비상약 및 처방약 여분, 응급처치 물품
- 반려동물 대피 정보 카드 (사진 첨부)
- 반려동물 진료 수첩
- 목줄, 입마개, 밥그릇, 담요, 배변패드, 청소용품, 장난감

3. 수의사와 상담하기

- 반려동물 등록 마이크로칩은 재난 시 반려동물을 분실하였을 때 다시 찾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므로 반드시 동물 등록을 마친다.
-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새롭게 백신을 맞아야 할 때가 되었다면 추가 접종을 하고 백신 접종 확인증을 받는다.
- 평소 복용하고 있는 약물이 있다면 재난 발생 상황을 대비하여 여분의 약물(일주일 분)을 추가적으로 처방 받는다.

4. 가족들과 함께 대피 연습하기

- 가족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재난 발생 시 대피 과정을 함께 연습해본다. 특히 재난 발생 시 동물들은 환경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구석에 숨거나 핸들링을 거부할 수 있어 반려동물을 안전하게 포획하고 이동장을 편안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.
- 재난 발생 시 집에 들러 반려동물을 데리고 탈출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가까운 이웃에게 미리 부탁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.

재난 발생 시

1. 대피 전 확인하기

- 반려동물을 이동장으로 옮기고 미리 준비해놓은 반려동물 재난 키트를 챙긴다.
- 출발하기 전 이동하고자 하는 대피시설(임시주거시설)에 연락하여 반려동물과 함께 대피할 여분의 공간이 남아있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한다.
- 미리 생각해 놓은 이동수단 및 대피 경로를 통해 대피시설로 이동한다.

2. 대피 중 요령

- 대피 과정 동안에는 절대 반려동물을 혼자 두거나 이동장 밖으로 꺼내지 않고 기둥에 묶어두지 않는다.
-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오염된 물이나 바닥에 떨어진 잔해 등을 먹지 않도록 주의해서 살펴본다.

3. 대피시설(임시주거시설) 생활 요령

- 대피시설 입장 시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입장에 필요한 서류 및 동의서 작성에 협조한다.
- 대피시설 내에서의 반려동물의 행동 및 위생에 철저히 신경 쓴다.
- 재난 시 스트레스로 인해 반려동물의 행동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려동물을 더 주의 깊게 살핀다.
- 반려동물에게 물리거나 긁힌 상처 등은 즉시 관계자에게 알려 적절한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.

주의

스트레스 상황에서 동물은 예측불가능한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.

- 특히 공격성을 보이거나 보호자에게 오지 않고 숨을 수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이동장에 넣는데 정상 시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- 대피시설에서 반려동물을 관계자에게 인도해야 할 경우, 보호자가 동물을 안고 인수자는 동물의 뒤에서 동물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.

재난 발생 후 회복

1. 반려동물의 건강

- 재난은 사람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에게도 신체적, 정신적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. 익숙한 장소 및 냄새, 영역 표시된 곳 등이 바뀌어 (<http://www.yeosu.go.kr>)

혼란 및 행동 변화를 보일 수 있다. 항상 목줄이나 이동장을 사용하여 반려동물을 이동시키고 주의 깊게 행동을 살핀다.

- 반려동물이 이상 행동을 보이거나 구토, 설사, 기침 등의 증상을 보이면 가까운 동물병원에 빠른 시일 내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는다. 외상을 입은 동물은 공격성을 보일 수 있으므로 최대한 조심스럽게 다루고 보호자 및 가족이 위협에 노출되지 않는 선에서 빠른 시일 내 가까운 동물병원에 방문한다

2. 집에 돌아온 후

- 집에 돌아오면 반려동물에게 위협할 수 있는 물건을 정리한다. 깨진 유리파편, 나무나 철사조각 등 뾰족한 물건 등은 쉽게 상처를 입힐 수 있어 주의한다.
- 반려동물이 삼킬 수 있는 크기의 이물질 등을 치운다. 집 근처 떨어진 전선이나 오염되어 고인 물, 뱀이나 쥐 등의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한다.
- 집 내/외부를 소독한다. 오랜 시간 방치된 공간은 각종 병원균이 살기 좋은 환경일 수 있다. 사람과 반려동물 모두를 위해 청소와 소독에 신경 쓴다.

3. 반려동물을 유실 했을 경우

- 대피 중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, 관련기관에 문의하고 유실/유기 동물 정보 사이트를 확인한다.
- 잃어버린 동물의 마이크로칩 정보를 활용해 반려동물을 확인한다.

Yeosu Web Contents

